

- 포항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분석과 전략과제
- 최근 포항경제와 지역 철강기업의 구조 분석
- 포항의 자생적 철강생태계 구축전략

오시는 길



- * 버스 : 108, 130, 131
- * 공항 : 200번 버스를 타신 후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횡단보도 건너 131번 환승
- * KTX : 107,500번 시내행 버스를 타신 후 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131번 환승

문의 | 한국은행포항본부 기획조사팀 |

Tel. 054-289-2821~23, Fax. 054-289-2850

E-mail, pohang@bok.or.kr

I N V I T A T I O N

한국은행 창립69주년 지역경제세미나

포항의 자생적 철강생태계 구축전략

2019.6.13.(목) 14:00~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



주최 · 주관



국회철강포럼



모시는 말씀

올해는 포항이 시(市)로 승격한지 7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포항은 1973년 당시 포항제철의 제1고로 준공과 함께 작은 어촌에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을 지원하는 철강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이 굳건해지면서 매년 지역경제는 순탄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또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세계경제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철강산업의 주변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포항은 POSCO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금속산업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소재를 공급받아 울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영향 받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중간재뿐만 아니라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자생적 철강생태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매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발전전략을 지역경제세미나를 통해 제언해 왔습니다. 올해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포항시, 국회철강포럼, 경북매일신문과 공동으로 지역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철강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역의 자생적 철강생태계 구축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석하셔서 포항의 앞날을 위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구분	주요내용		진행	
제1부 개회식		세미나 식전행사		총괄 사회	
13:50~ 14:35	-14:00	접수등록	coffee break		
	-14:03	개회선언 국민의례	총괄사회: 김진홍 (한국은행 부국장)		
	-14:05	내빈소개			
	-14:10	개 회 사	하대성 한국은행포항본부장		
	-14:25	인사말씀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국회의원
					최윤채 경북매일신문사장
-14:30	축 사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14:35	사진촬영	주요인사 사진촬영			
제2부 주제발표		포항의 자생적 철강생태계 구축 전략		좌장	
14:40~	1주제	최근 포항경제와 지역 철강기업의 구조 분석			
15:10	발표자	한국은행 포항본부 박진혁 과장			
15:10~	2주제	포항지역 주력산업 생태계 분석과 전략과제			
15:40	발표자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팀장			
15:40~15:50		장내정리 & Coffee Break			
제3부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0~ 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좌장)	김준홍 교 수(포항대)		
		지정토론자	최진혁 과 장(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정연대 국 장(포항시일자리경제국) 최상민 책임연구원(포스텍 R&D 전략정책연구소)		
		질의응답	박진혁 (제1주제 발표자) 임규채 (제2주제 발표자)		
폐회	폐회선언	폐회	총괄 사회		

주최·주관



국회철강포럼

